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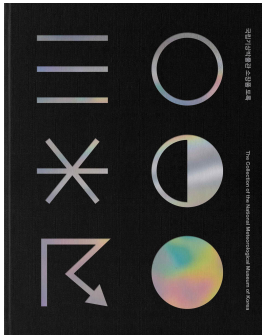
국립기상박물관 4년간의 발자취를 한 권에 담다

- 개관 4주년 기념, 『국립기상박물관 소장품 도록』 발간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국립기상박물관 개관 4주년을 기념하여 주요 소장품 163점을 담은 『국립기상박물관 소장품 도록』을 발간하였다.

도록에는 국립기상박물관 대표 소장품인 국보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와 보물 「관상감 측우대」를 비롯하여, 국가등록유산인 「서울 기상관측소」,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등 우리나라의 기상과학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소장품들이 소개되어 있다.

< 「국립기상박물관 소장품 도록」 표지 및 수록 내용 >



도록 표지



국보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1973년(현종 3)



국보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1770년(영조 46)



이번 도록은 국립기상박물관 개관(2020년 10월) 이후 최초로 발간된 ‘소장품 도록’이다. 개관 전부터 현재까지 이관·기증·구입으로 수집된 주요 소장품이 기상과학 역사의 ‘수집’, ‘공유’, ‘계승’이라는 주제로 분류되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장품의 시대적 가치와 의의 등 상세한 설명과 고화질의 사진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기상과학 역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1장. 수집: 개관 전 자연현상 역사 기록에 기반한 소장품(48건)
- 2장. 공유: 개관전시 방향과 정체성을 반영한 소장품(53건)
- 3장. 계승: 개관 후 수집된 자료의 활용과 계승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62건)

장동연 기상청장은 “국립기상박물관 개관 4주년을 맞아 최초로 발간되는 소장품 도록이 박물관의 소장품과 전시를 깊이 이해하고 기상 역사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귀중한 소장품을 모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기증해주신 기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라고 밝혔다.

국립기상박물관은 기상 역사 자료의 공유와 대중화를 위해, 발간된 도록을 공식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 공개 위치: 국립기상박물관 누리집(science.kma.go.kr/museum) → 전시→ 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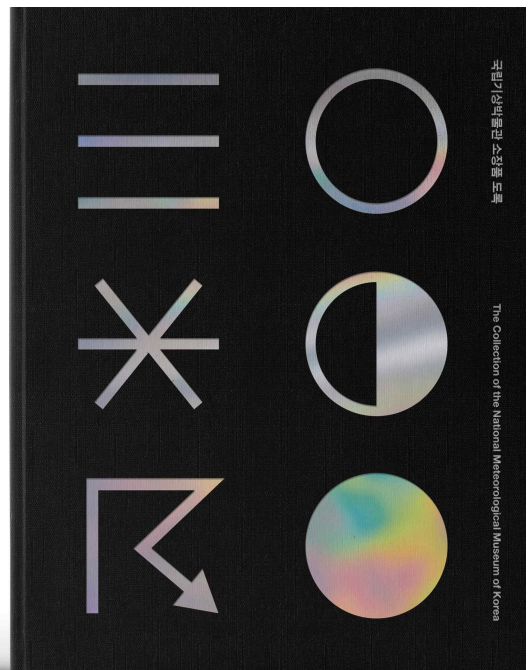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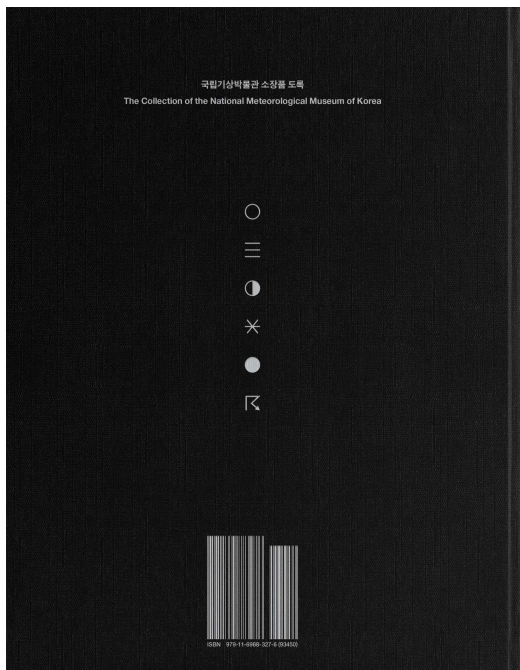
- 붙임 1. 소장품 도록 사진
2. 주제별 주요 소장품

담당 부서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수희 (042-481-7460)
		담당자	사무관	김은영 (042-481-848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국보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1837년(헌종 3)



국보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1770년(영조 46)



보물
관상감 측우대, (추정)1442년(세종 24),



국가등록유산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1904~1963년



본관



우량계실



식재지(단풍나무)



식재지(벚나무)

국가등록유산
서울 기상관측소, 1932년